

# 장류산업 혁신 국가예산 확보 · 기반 구축

6.2%라는 도내 최고 지지율로 당선된 황숙주 순창군수의 민선 6기가 이제 3년을 넘어섰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황숙주 군수는 전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대내외에 능력을 과시했다. 가장 큰 성과는 순창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장류산업에 혁신하는 국가예산 확보와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또 문화 불모지였던 순창을 짧은 기간 내에 문화지수 전국 상위 10위 안의 군으로 만들고 여성이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인 점도 높이 평가된다. 강천산에다 섬진강을 더하는 관광자원의 다변화로 300만 관광객을 넘어 500만 관광객에 도전하는 순창의 관광산업 또한 성과다. 특히 순창농업의 핵심인 친환경농업은 본궤도에 진입해 전북지역 최대의 인증면적 확보와 함께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완공하고 친환경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등 농업분야에서의 성장도 도드라진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도 민선 6기의 눈에 띄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순창 발전을 최선봉에서 진두지휘하며 25시간을 뛰고 있는 황숙주 군수를 만나본다.



대요. 순창은 친환경농업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순창군의 친환경 인증면적은 1,256ha에 이르렀죠. 도내 최대 인증면적입니다. 면적증가는 도내 14개시군 중 순창군이 유일합니다. 양적 확대와 더불어 친환경 농업의 질적 성장을 가져올 대규모 사업도 차근차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2012년부터 100억원을 투자해 시작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사업은 경종과 축산에 연계해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생산 유통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산지유통 및 체험시설, 친환경 벼 건조 저온저장시설을 갖췄습니다.

**▲민선 6기 순창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다른 성과는 어떻게 있을 까요?**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상권이 살아난 것도 민선 6기의 큰 성과입니다. 순창군이 지난해 유치한 크고 작은 스포츠 대회가 44개입니다. 전지훈련 팀은 120개를 유치했구요.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총 94억원 규모입니다. 스포츠대회 기간 중에는 순창의 식당이나 숙박업소를 예약하기 힘들 정도로 선수들로 꽂혔습니다. 또 여성들이 살기 편안하고 아이 낳기 좋은 순창을 만들고 있는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전용 화장실과 각종 편의시설 등을 확충했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을 만들고 출산 장려금도 대폭 확대 했죠! 정책들이 효과를 거둬 우리군은 2015년 186명이던 산생아수가 254명으로 68명이 증가 했습니다. 도내 군단위에서는 유일하죠. 의미가 있는 것은 출생아수가 2년 연속 증가해 단순한 일회성 현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죠. 만성질환 없는 순창 만들기 사업으로 건강한 순창을 만들어 가고 있고 클린순창 운동을 통해 자연을 보존하고 있는 것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6기 이제 1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계획이나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민선 6기 3년동안 군민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많은 성과를 봤습니다. 저는 이제 1년 동안 그동안 추진해온 일을 하나하나 마무리 짓고 군민들에게 열매가 고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저는 순창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군민 여러분 이제 민선 6기도 1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니다. 저와 공직자들은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앞만 보고 뛰겠습니다. 군민여러분 순창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군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지역으로 만드는데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벌써 민선 6기 3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군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들께 보답하는 길은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이라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다행히 직원들과 군민 여러분의 협조로 많은 성과도 거뒀다고 생각 합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사업을 착공했고 다양한 농촌개발 사업을 시행해 정주여건을 개선했으며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것입니다. 또 강천산과 섬진강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다변화해 관광객 300만명을 유치하였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큰 성과를 일구어 냈습니다. 한가지 더 자랑하고 싶은 것은 순창의 친환경농산물이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제주 등 전국 각지의 학교 급식 재료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 뿌듯합니다.

630억원을 투자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국비 확보가 순조로워 성공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류산업 혁신의 또 하나 키워드는 전통장류의 소스산업화입니다. 장류는 국내시장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시장은 포화 상태죠.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장류가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거쳐야할 필수 과정이 있는데요. 바로 '장류의 소스화'입니다. 세계인의 입맛에 맞게 계량화하고 어느 음식에든 어울릴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를 통해 4조원 규모의 세계소스시장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순창은 지난해 순창 세계소스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세계 소스시장의 트렌드를 볼 수 있고 장류제품의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행사였는데요. 결과는 대 성공이었습니다. 11만명의 관광객과 바이어들이 순창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제품들의 세계시장 진출 상담도 다양하게 진행됐습니다.

## ▲순창의 장류 산업이 크게 변화하고 있죠? 어떤 내용인가요?

순창하면 고추장이지요. 이 장류브랜드 가치는 우리에게 큰 재산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를 먹여살릴 효자산업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장류산업도 혁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야를 세계로 넓히고 관광과 연계시켜 파이를 키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와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 사업을 시작합니다. 순창의 장류산업을 혁신적으로 성장시켜줄 사업으로 기대가 됩니다. 국내에서 세계로 나가는 방법이고 발효산업과 관광을 융합한 새로운 한국 전통발효 문화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2020년까지 국비와 민간투자를 포함해

## ▲요새 순창에 문화향유 기회가 높아 졌다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지난해 전국문화지수 군단위 10위 안에도 선정됐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문화욕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농촌도 소득이 올라가면서 문화욕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생활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 했습니다. 사실 이 분야에 투자도 소홀했습니다. 영화 한편 보기위해 인근 광주나 전주로 가야 하는 불편을 감내해야 했죠! 저는 취임 초부터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삶이 여유있는 문화 순창을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우선 문화인프라를 대폭 늘렸습니다. 군립도서관, 작은영화관, 청소년문화의집, 미술관, 작은목욕탕, 일품공원 등이 새로 생겼습

## 장류산업 혁신화 필요해 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 선도지구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사업 수립

작은영화관 등으로 문화인프라 대폭 늘려

##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상권 살려 여성화장실 · 공립어린이집 조성도

니다. 작은영화관은 지난해 관람객이 6만을 넘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순창군 인구 3만명이 2만씩 영화를 본 셈이죠. 군립도서관도 인문학 부흥중심지로 특색을 역할을 하고 있고요. 미술관은 앞으로 학생들을 위한 미술교육의 장으로 더욱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연 관람기회도 많이 늘었는데요. 최근에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통촌서커스 공연을 진행했는데요. 두 번 다 표가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죠. 또 향토관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오케스트라 공연도 꽤 인기가 있고 주말마다 일품공원에서 순창군민 문화예술동호회 회원들의 공

연도 펼쳐 집니다. 군민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죠.

앞으로 군민 모두가 마음껏 문화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500만 관광객 유치를 선언하셨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요?

순창을 찾는 관광객이 300만명을 넘어 500만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순창관광이 매력에 있다는 증거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관광객 500만명 유치 몇 년 내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관광자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강천산을 중심으로 관광객을 유치했죠. 강천산은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만 이것 하나만 갖고는 관광객들을 머물게 하면서 돈을 쓰게 만들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다행히 순창에는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섬진강이 흐르고 있어 이를 활용한 1박 2일 체류형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 ▲농업을 배농을 수는 없겠죠? 농업경쟁력 친환경 농업에서 찾고 계신가요?

순창은 인구 3만의 전형적인 농촌입니다.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38%를 차지할 만큼 아직도 농업이 중심산업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느냐 인

**떠나자**  
맑은 물과 푸른숲이 있는 순창 강천산으로...

강천산 계곡, 강천산 병풍목포, 메타세리아길, 장군목

**순창의 참종다**  
순창의 전통경(靑), 세계적인 일품소스(SALICE)  
제12회 순창장류축제  
2017.10.20(금)~10.22(일) 3일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